



# 중국리포트

##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23-5호  
 2023년 3월 16일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2022년 중국 유형별 택배량

단위: 억 건, %

유형	건수	증가율
타지역 택배	957.7	4.0
도시내 택배	128.0	-9.3
국제 택배	20.2	-4.1

자료: 중국 국가우정국

#### ▣ 2022년 중국 택배량 10대 도시

단위: 억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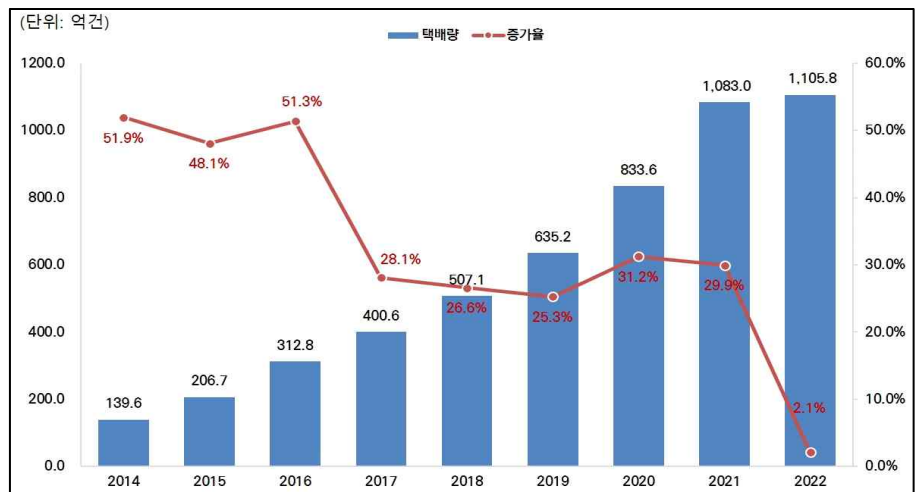
순번	지역	건수
1	진화시(이우) (金华(义乌))	118.0
2	광저우시	101.3
3	선전시	58.0
4	지예양(揭陽)시	37.2
5	항저우시	34.8
6	둥관(东莞)시	28.8
7	상하이시	28.6
8	산터우(汕头)시	24.6
9	쑤저우시	24.3
10	취안저우시	21.1
	합계	476.7

자료: 중국 국가우정국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MI All Rights Reserved.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자료: 중국 국가우정국(<http://www.spb.gov.cn/>), 『邮政业运行情况』, 각 호 공보

### 2022년 중국 택배량 1,106억 건, 전년 대비 2.1% 소폭 증가

2022년 중국의 택배량은 1,105.8억 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에 그쳤으며, 증가율은 전년 대비 27.8%p나 하락했다. 이는 2022년 중국 경제와 소비 부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택배기업의 운영 효율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2022년 도시 내 택배량과 국제 택배(홍콩·마카오·타이완 포함)량은 각각 128억 건과 20.2억 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9.3%와 4.1% 감소한 반면, 타 지역 택배량은 957.7억 건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도시별로는 소상품 무역이 가장 활성화된 진화시(이우)가 118억 건으로 가장 많으며, 2019년부터 연속 4년 중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광저우시는 101.3억 건을 처리해 2위를 차지했으며, 선전시(58.0억 건), 지예양(揭陽)시(37.2억 건)와 항저우시(34.8억 건)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4위를 차지했던 상하이시는 2022년 상반기 장기 봉쇄로 택배량이 2021년 37.4억 건에서 28.6억 건으로 크게 줄어 7위로 밀려났다.

한편, 2022년 택배업 매출액은 1조 566.7억 위안(한화 약 202조 1,9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에 그쳤으며, 증가율은 전년 대비 15.2%p 줄었다. 다만, 건당 매출액은 9.6위안(한화 약 1,837원)으로 2021년(9.5위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저자

KMI 중국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김은우 부연구위원  
진선선·하염희 중급연구원  
당팅팅 연구원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양회(兩會)’<sup>1)</sup>는 중국 정부가 매년 3월 개최하는 최대 연례 정치 행사로 전통적으로 매년 3월 초에 시작되어 약 2주간 진행된다. 시진핑 집권 3기 체제가 공식 출범된 2023년 양회는 3월 4일(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월 13일(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제1차 회의 폐막식과 함께 종료되었다.

3월 5일 열린 전인대 개회식에서 리커창 총리는 임기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2년 및 지난 5년(시진핑 주석 집권 2기) 간의 주요 성과와 신임 중국 지도부가 수행할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한 건의<sup>2)</sup>를 보고했다.

이에 이번 ‘이슈 포커스’에서는 「정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2023년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목표와 추진 과제를 검토하고, 양회 기간 전인대 대표와 전국정협 위원들이 발의한 주요 안건들을 중심으로 2023년 중국의 해양수산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 1 2023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주요 목표 및 정책<sup>3)</sup>

리커창 총리는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중국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대내적으로는 국내경제 성장 안정화 기반 공고화 필요, 수요 부족, 민간투자자와 민간기업 전망 불투명, 고용 안정화, 부동산 리스크, 일부 중소 금융기관 위험 노출, 과학기술 혁신역량 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세계 경제·무역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외부로부터 압력과 억제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대내외 도전에 대응하고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정부 업무의 중점을 내수 확대와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의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실현하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올해에도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목적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 적극적인 재정 정책 추진 및 효율성 제고 △ 세금 및 수수료 우대 정책 개선, 현행 감세 및 수수료 인하, 세금 환급 및 유예 조치의 지속 및 최적화 △ 기층의 세

1) ‘양회’는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를 통칭하는 용어임  
2) 중국에서는 지도부가 교체되는 해의 정부 업무는 새로운 지도부가 수행하기 때문에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임 지도부 총리가 신임 지도부에 건의하는 형태를 취함  
3) 中国政府网(2023.3.5), 李克強作政府工作报告(文字摘要), [http://www.gov.cn/premier/2023-03/05/content\\_5744736.htm](http://www.gov.cn/premier/2023-03/05/content_5744736.htm) (검색일: 2023.3.5.)를 바탕으로 작성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가지(기본 민생, 월급, 운영) 보장 △ 실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둔 정확하고 온건한 통화정책 시행 △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정화 △ 발전과 안전을 모두 고려한 산업정책 추진 △ 자립자강(自立自強)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 정책 발전 △ 민생의 기본을 확고히 다지는 사회 정책 시행 등을 올해 주요 거시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표 1] 2023년 중국 정부의 거시정책 주요 방향

구분	기본 방향
적극적인 재정 정책 추진 및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재정 적자율은 전년 대비 0.2%p 높은 3%로 책정하고 재정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5,100억 위안(한화 약 95조 6,709억 원) 증가한 3.88조 위안(한화 약 727조 8,492억 원)으로 설정</li> <li>· 지방정부 특별 채권은 전년 대비 1,500억 위안 증액한 3.8조 위안(한화 약 712조 8,420억 원) 발행</li> </ul>
정확하고 온건한 통화정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통화 공급량(M2)과 사회 용자규모의 증가율을 GDP 명목 증가율과 기본적으로 일치시켜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li> </ul>
발전과 안전을 모두 고려한 산업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산업 개조 및 고도화,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강화</li> <li>· 산업기술과 혁신기술 간 융합 추진</li> <li>· 실물경제, 특히 제조업을 고수하여 안정적 발전 기반 강화</li> </ul>
자립자강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 정책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배치</li> <li>· 과학기술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지위 강화</li> <li>· 과학기술 예산의 투입 효율 제고</li> </ul>
민생의 기본을 확고히 다지는 사회 정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및 취업 우선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li> <li>· 양로보험의 전국 통합 추진</li> <li>· 양질의 의료자원 확충, 지역별 균형 배치</li> <li>· 출산 지원 정책 개선</li> </ul>

자료 : 김은우(2023), 2023년 중국 '양회(兩會)' 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KMI 중국 해양수산 위클리, 제23-7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3-4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2022년의 5.5%보다 0.5%p 낮은 '5% 내외'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기저 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GDP 성장률 목표치 하회, 불확실성 산재, 신임 지도부에 대한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설정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CPI 증가율은 3.0% 내외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은 전년 대비 0.2%p 증가한 3%로 설정되었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0만 명 증가한 1,200만 명 이상, 도시조사 실업률(5.5% 내외)과 곡물 생산량(6,500억 kg 이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목표치가 제시되었다. 이에 더해 주민소득 증대와 경제 성장을 동기화시키고, 수출입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통해 국제수지 균형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 측면에서는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과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화석에너지 소비를 중점적으로 통제하며, 생태환경에 대한 질적 개선을 지속한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표 2] 2020-2023년 중국의 경제지표 목표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경제성장률	미설정	6% 이상	5.5% 내외	5% 내외
CPI 증가율	3.5% 내외	3.0% 내외	3.0% 내외	3.0%
도시 신규 취업자 수	900만명 이상	1,100만명 이상	1,100만명 이상	1,200만명 내외
도시조사 실업률	6% 내외	5.5% 내외	5.5% 이내	5.5% 내외
재정 적자율	3.6% 이상	3.2% 내외	2.8% 내외	3.0% 내외
M2 증가율	명목 GDP 성장률 수준			
곡물 생산량	미설정	6,500억 kg 이상	6,500억 kg 이상	6,500억 kg 이상

자료 : 中国政府网(2020.5.29.), 政府工作报告, [http://www.gov.cn/premier/2020-05/29/content\\_5516072.htm](http://www.gov.cn/premier/2020-05/29/content_5516072.htm)  
 中国政府网(2021.3.12.), 政府工作报告, [http://www.gov.cn/premier/2021-03/12/content\\_5592671.htm](http://www.gov.cn/premier/2021-03/12/content_5592671.htm)  
 中国政府网(2022.3.12.), 政府工作报告, [http://www.gov.cn/premier/2022-03/12/content\\_5678750.htm](http://www.gov.cn/premier/2022-03/12/content_5678750.htm)  
 (검색일: 2023.3.14.); 中国政府网(2023.3.5.)(검색일: 2023.3.5.)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023년 경제 운용목표 실현을 위해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8대 중점 추진 과제를 건의했다([표 3] 참조). 유효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수 확대'가 첫 번째 과제로 언급되었다. 이는 중국이 수출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증대를 통해 국내수요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외부 압력과 역제가 고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적인 산업체제 구축 가속화'를 두 번째 과제로 언급했다. 이는 내수 확대와 동시에 생산기능 개혁을 촉진하여 새로운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민간기업과 외자기업의 자신감 진작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에 포함되었다. 한편, 2022년에 비해 올해 정부 업무 보고는 '중대한 경제·금융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독립된 중점 추진 과제로 명시했다. 금융 개혁을 심화하고 부동산 위험을 해결하며, 숨겨진 채무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올해에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또 위험도 예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녹색 전환 발전에 있어서는 오염 방제, 핵심 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표 3] 2023년 8대 중점 추진 과제

구분	중점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내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 회복과 확대 우선</li> <li>·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 증대</li> <li>· 대량 상품 소비 안정화 및 생활서비스 소비 회복</li> <li>· 정부 투자와 정책 인센티브를 활용해 효과적 투자 견인</li> <li>· 지방정부 특별채권 3.8조 위안 발행을 통해 '14·5' 계획 기간 중대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li> <li>· 주요 국책사업과 보강사업에 민간자본 참여 유치, 확대</li> </ul>
2	현대적인 산업체제 구축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핵심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양질의 자원을 집중하여 핵심 기술 난관 공략</li> <li>· 중요한 에너지·광물 자원의 국내 탐사·개발과 증산 강화</li> <li>· 전통 산업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첨단화, 스마트화 및 녹색 수준 향상</li> </ul>





## CONT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기술 연구와 개발, 응용 촉진</li> <li>· 현대적 물류체계 개선</li> <li>· 디지털 경제 대폭 발전, 상시화 관리·감독 수준 향상</li> <li>· 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li> </ul>
3	“량거하호부동야오(两个毫不动摇)”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기업 개혁 심화, 핵심 경쟁력 제고</li> <li>· 국유기업이 경제·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며, 지배체계 개선</li> <li>· 민간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 보호</li> <li>· 민간경제와 민간기업의 발전 지원</li> <li>· 중소·영세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발전 지원</li> </ul>
4	외자 유치·이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접근 확대, 서비스 산업 개방 강화</li> <li>·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시행</li> <li>·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등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협정 가입 적극 추진</li> <li>· 관련 규칙, 규제, 관리 및 표준에 맞춰 제도적 개방 꾸준히 확대</li> <li>· 경제에 대한 수출입의 지원 역할 계속 수행</li> <li>·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 대표적인 외자 프로젝트 이행 추진</li> </ul>
5	중대 경제·금융 위험 효과적 예방·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체계 개혁 심화, 금융 관리·감독 개선</li> <li>· 각 분야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여 지역적, 구조적 금융 위험 발생 방지</li> <li>· 양질 부동산 기업의 위험 효과적으로 예방·해결, 자산부채 상황 개선, 무질서한 확장 방식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안정적 발전 촉진</li> <li>· 지방 정부의 채무 위험을 예방·해결, 채무기간 구조 최적화, 이자 부담 감소, 채무 증가 억제, 기존 채무 해소</li> </ul>
6	곡물 생산 안정화, 농촌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물 재배면적 안정화, 유료작물 생산 강화, 곡물 생산능력 5천만 kg 향상 조치 새로 시행</li> <li>· 농업 자재 공급 및 가격 안정 대응체계 개선</li> <li>· 농지 수질 관리 및 고표준 농지 등 기반시설 건설 강화</li> <li>· 중자산업 진흥 조치 심층적으로 시행</li> <li>· 농업 과학기술과 장비 지원 강화</li> <li>· 농촌 특색산업을 발전시켜 농민 소득 증대</li> <li>· 빈곤 퇴치 성과 대규모의 빈곤 재발 방지</li> </ul>
7	녹색 발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오염 방제 심도 있게 추진</li> <li>· 도시와 농촌의 환경 기반시설 건설 강화</li> <li>· 중요 생태계 보호·복구 중대 프로젝트 지속 실시</li> <li>· 석탄 청정·고효율 이용과 관련 기술 연구·개발</li> <li>· 신에너지 체계 구축 촉진</li> <li>· 녹색 발전 정책 지원 강화, 순환경제 발전</li> <li>· 자원 절약, 집약화 이용</li> <li>· 중점 분야의 에너지 소비 감소 및 탄소 저감 추진</li> </ul>
8	기본 민생 보장, 사회사업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보장체계 강화</li> <li>· 주택 실수요, 갈아타기 수요 지원</li> <li>· 신(新) 시민, 청년 등의 주택 문제 해결</li> <li>· 양질의 의무교육 균형 발전 및 도시와 농촌 통합 추진</li> <li>· 직업교육 적극 발전, 고등교육 혁신</li> <li>· 양질의 의료자원 확충, 지역 균형 배치 촉진</li> <li>· 노인 요양 서비스 강화, 출산 지원 정책체계 개선</li> <li>· 여성,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li> <li>· 군인·군속 퇴역군인과 기타 수혜자에 대한 구휼 사업 강화</li> <li>· 문화 사업과 산업 발전</li> <li>· 사회 거버넌스 효율성 향상</li> <li>· 산업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과 재해 예방, 감소, 구조 강화</li> </ul>

자료 : 中国政府网(2023.3.5.)(검색 일: 2023.3.5.)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4) 두 가지 사항을 흔들림 없이 이행한다는 뜻으로, 공유제 경제를 굳건히 발전시키고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지원함을 의미함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2

## 2023년 양회 기간 해양수산 분야 주요 논의 이슈

이번 양회에 참석한 전인대 대표와 전국정협 위원들은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물류 분야 현안 이슈와 관련 다양한 정책 안건을 발의했다. 발의된 주요 안건들을 통해 이슈별로 현재 중국이 처한 상황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알 수 있다.<sup>5)</sup>

## 1) 해양 분야

양회 기간에는 중앙부처 부장(장관)들이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부장통로(部長通道)' 인터뷰도 진행된다. 3월 5일 진행된 인터뷰 현장에서 중국 생태환경부 황룬치우(黃潤秋) 부장은 올해 주요 추진업무로 탄소 저감, 오염 감소, 녹색 확대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sup>6)</sup> 3월 12일에는 중국 자연자원부 왕광화(王廣華) 부장이 향후 해안선 및 연안에 대한 보호·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해 습지 퇴화, 해안선 후퇴, 외래 생물종 침입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sup>7)</sup>

## (1) 쌍탄('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전인대 대표 인핑(印萍)(칭다오해양지질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해양 생태 환경 파괴 검정에 필요한 통일된 표준이 미흡한 바, 관련 입법을 통해 해양 생태환경에 대한 사법(司法) 보호 수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sup>8)</sup> 구체적으로는 해양 생태환경 공익소송 관련 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는 입법 추진, 해양 생태환경 공익소송 기술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술과 데이터 장벽 극복 등을 제안했다.

후송친(胡松琴) 전국정협 위원(중국 생태환경부 해양생태환경사(海洋生態環境司) 부사장(副司長))은 중국 해역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잠재력을 2.58조 톤으로 추산하며,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해저 지중저장과 관련한 시범 연구 추진, 정책 및 기술 마련 등을 건의했다.<sup>9)</sup>

완신(榮新) 전국정협 위원(칭다오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은 해양 과학기술 인프라 배치, 요소 집적, 심수·원양 자원 개발을 위한 '종합적

5) '양회'에서는 '의안(議案)'과 '제안(提案)', '건의(建議)' 등의 안건을 발의하는데 '의안'은 전인대 대표, '제안'은 전국정협 위원이 발의하는 안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인대 대표는 단독으로 건의(의견, 비판)를 발의할 수 있음. '의안'은 통과 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제안'이나 '건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관련된 부처·기관에서 이에 대해 환류를 진행함(한광석 등(2020),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 가는 해양수산 KMI 중국리포트, 제20-10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2)

6) 中國人民共和國生態環境部(2023.3.5.), 生態環境部部長黃潤秋在兩會"部長通道"答記者問, [https://www.mee.gov.cn/ywdt/hjywnews/202303/t20230305\\_1018505.shtml](https://www.mee.gov.cn/ywdt/hjywnews/202303/t20230305_1018505.shtml)(검색일: 2023.3.7.)

7) i自然全媒体(2023.3.13.), 自然資源部部長王廣華在全國兩會"部長通道"答記者問, <https://baijiahao.baidu.com/s?id=1760202451101244211&wfr=spider&for=pc>(검색일: 2023.3.13.)

8) 中華人民共和國最高人民法院(2023.3.5.), [https://www.spp.gov.cn/zdgg/202303/t20230305\\_606144.shtml](https://www.spp.gov.cn/zdgg/202303/t20230305_606144.shtml)(검색일: 2023.3.7.)

9) 封面新聞(2023.3.6.), 全國政協委員胡松琴: 發展海洋碳匯 推動二氧化碳埋藏地質封存, <https://www.thecover.cn/news/6icLf9LwBmH90qSdq8Jkw>(검색일: 2023.3.7.)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인 해양 국가과학센터 건설 촉진'을 건의했다.<sup>10)</sup> 그는 지난 몇 년간 칭다오, 상하이, 광저우 등 해양 과학기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양 과학연구 자원이 집적되고 있어 객관적인 조건은 이미 마련되었으며, 산둥반도, 창장삼각주 및 위예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에 경쟁력을 확보한 해양 과학성을 중심으로 종합 국가과학센터 3개를 건설할 것을 건의했다.

### (2) 해양 탄소흡수 거래 플랫폼 구축<sup>11)</sup>

콩판핑(孔凡萍) 전인대 대표(웨이하이시 부서기)는 해양 탄소흡수 분야의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프로젝트 심사에 대한 최상층 설계가 미비하고 거래시장은 확장성이 떨어지며, 기초연구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부족한 점 등 여러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현재 해양 탄소흡수는 CCER (Chinese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전국 거래시장에 편입되지 못해 각 지역별로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콩대표는 해양 탄소흡수 거래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조건과 기반을 구비한 지역에 해양 탄소흡수 경제를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고 녹색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를 설계할 때 해양 탄소흡수를 탄소 시장 프레임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탄소 거래 시장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장화 수단으로 관련 주체가 새로운 해양 탄소 흡수 증가 방식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해양 탄소흡수 소유권 규범화에 대해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입법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권리를 해역 이용권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중국 국내 블루카본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 탄소흡수 기금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선도적 시범 지역에서 블루카본 신용대출, 채권, 보험, 기금 등을 발전시키고 블루카본 선물 거래, 선물 옵션 등을 모색하며, 더 많은 블루카본 금융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3) 해양 바이오의약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웨젠강(韦建刚) 전국정협 위원(푸젠공정학원(福建工程学院) 부총장)은 2021년 중국 주요 해양산업 부가가치액 중 해양 의약품의 비중은 1.5%에 불과하며, 해양기술 성과의 산업화 수준도 5% 미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해양 바이오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건의했다.<sup>12)</sup> 한편, 민주당파 구삼학사(九三学社) 중앙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 해양 바이오의약 분야는 산업 발전계획 미비, 낮은 클러스터화 수준, 선진국과의 연구·개발 및 성과 상용화 격차, 과학연구

10) 青岛日报(2023.3.6.), 全国政协委员梁新: 加快建设海洋领域综合性国家科学中心, [https://www.qingdaonews.com/content/2023-03/06/content\\_23417626.htm](https://www.qingdaonews.com/content/2023-03/06/content_23417626.htm)(검색일: 2023.3.13.)

11) 人民网(2023.3.7.), 孔凡萍代表: 搭建海洋碳汇交易平台 探索蓝碳经济发展路径, <http://finance.people.com.cn/n1/2023/0307/c1004-32639159.html>(검색일: 2023.3.14.)

12) 海洋报(2023.3.6.), 全国政协委员 福建工程学院副校长韦建刚: 协同赋能我国海洋生物医药产业竞争力水平, <https://mp.weixin.qq.com/s/hceZMMB37xvdLIV5QTPxg>(검색일: 2023.3.7.)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및 인적 자원 활용 부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 해양 바이오의약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을 제안했다.<sup>13)</sup>

[표 4] 해양 바이오의약 산업 관련 세부 제안 내용

제안/건의자	세부 제안 내용
웨이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해양 혁신 실험실' 및 관련 혁신 플랫폼 건설을 높은 수준으로 추진</li> <l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선순환 체계를 갖춘 혁신 생태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두 기업을 산업시설의 중심으로 하고 국가 해양 탄소흡수 거래 센터를 기반으로 활용하며, 해양 싱크탱크를 소통 교량으로 삼아 녹색 금융 지원을 통해 협동 혁신 경쟁력 제고</li> </ul> </li> <li>· 해양 바이오의약 세부 분야의 연구 성과 산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중요한 바이오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산업화 시범사업 지원 강화</li> </ul> </li> <li>· 해양 바이오의약 산업의 협동 혁신 메커니즘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급 '블루 약학 밴드'를 구축하고 싱크탱크의 주도로 과학기술, 시장 주체, 산업 자금, 인재 등의 측면에서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li> </ul> </li> </ul>
구삼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바이오의약 산업 발전 계획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연해 성(省)의 자원 조건 및 기술 우위에 따라 분업 및 협력을 추진해 자원 낭비와 낮은 수준의 중복 건설 방지</li> <li>- 기업과 과학연구 기구 등 해양 약학 개발 방향을 유도하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li> </ul> </li> <li>· 해양 바이오의약 산업의 성과 상용화 및 관련 지원 체계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해양 바이오의약 기업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선두 기업을 육성하도록 함</li> </ul> </li> <li>· 해양 바이오의약 산업 인재 육성, 과학연구 플랫폼 구축 촉진</li> <li>· 해양 바이오의약 산업의 발전 요소 배치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해 지역의 해양 바이오의약 산업 구도 최적화</li> <li>- 지역 간 인재 및 자금 배치를 조정해 산업 집적 및 규모화 발전 형성</li> </ul> </li> </ul>

자료 : 진선선(2023), 양회 해양 분야 주요 이슈, KMI 중국 해양수산 위클리, 제23-8호,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p.6; 九三学社中央委员会(2023.3.6)(검색일: 2023.3.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4) 심해 장비 기술 체계화 및 개발

후전(胡震) 전국정협 위원(중국선박그룹 702연구소 연구원)은 심해 장비 중대 사업의 조속한 추진, 심해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실험실 설립과 심해 장비 기술의 체계화 발전 촉진을 건의했다.<sup>14)</sup> 예충(叶聪) 전국정협 위원(중국선박그룹 702연구소 부소장)은 국가 전략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심해 채광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심해 채광 장비의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sup>15)</sup>

[표 5] 심해 장비 기술 관련 세부 제안 내용

제안/건의자	세부 제안 내용
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해 장비 중대 사업 특히 '과학기술 혁신 2030 중대사업-심해 정거장 (Deep-Sea Space Station)' 건설을 조속히 시작</li> <li>· 심해 과학기술 국가 실험실 설립</li> </ul>

13) 九三学社中央委员会(2023.3.6), 九三学社中央: 关于加快我国海洋生物医药产业高质量发展的提案 <http://www.93.gov.cn/xwjcs-snyw/774344.html>(검색일: 2023.3.9)

14) 中国船舶报(2023.3.7), 胡震委员: 加快后动力舱深潜空间站项目, <https://mp.weixin.qq.com/s/rSqcf2mp4aUKk2mMxN1pNA>(검색일: 2023.3.9)

15) 中国船舶报(2023.3.6), 全国政协委员, 中国船舶集团七〇二所所长叶聪: 加快发展深海采矿装备 保障国家战略资源自给, <https://news.cnstock.com/industry.rdj-202303-5026335.htm>(검색일: 2023.3.9)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해 장비 기술 발전 모델을 개선하고 '기반-기술-장비-연구-개발-실험-응용'의 선순환 체계 형성</li> <li>- 심해 장비의 응용 및 산업화 체계를 완비하여 산업사슬 형성</li> <li>- 국가급 심해 장비 응용 보장 기지를 설립하고 남중국해 등 핵심 해역에서 심해 장비 시험사업의 응용 전개</li> <li>- 심해 장비에 대한 독자적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장비 산업의 형성 추진</li> </ul>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해 기술 개발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심해 채광 장비 기술 개발에 대한 상위 설계(토폴레벨 디자인)를 강화</li> <li>- 심해 채광 장비 기술 개발과 국가 해양 안보 전략, 해양경제 전략 간 연계 강화</li> <li>- 심해 채광 장비 기술 장기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발전 목표, 중점 임무 및 진도 계획을 명확히 제시</li> <li>- 독자적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핵심 설비의 연구 개발을 중점으로 추진</li> <li>- 심해 광산 채굴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규모화 채굴 능력을 조속히 육성</li> </ul>

자료 : 진선선(2023), p.6; 中国船舶报(2023.3.6)(검색일: 2023.3.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5) 해양 신에너지 산업 발전

귀젠펑(郭建增) 전인대 대표(중국선박그룹 708연구소 부소장)는 정부의 '쌍탄' 목표 달성 및 중국 동남 연해 지역의 청정에너지 안보를 위해 수소 에너지의 업스트림(친환경 수소 제조), 미드스트림(수소 저장·운송), 다운스트림(수소 이용) 등 전반적인 산업사슬 구축과 정부, 기업, 사회자본 참여를 통한 해양 수소 에너지 개발 촉진을 건의했다.<sup>16)</sup>

하이난성 치공당(致公党) 소속 허우마오펑(侯茂丰) 전국정협 위원은 하이난성 해상풍력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하이난성에서 심수·원해(深远海) 해상풍력 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심수·원해 해상풍력 발전 개발 계획」을 편성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해역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전개할 것을 건의했다.<sup>17)</sup>

### 2) 수산 분야

#### (1) 어업 탄소싱크 추진

류한위안(刘汉元) 전인대 대표(통웨이(通威)그룹 회장)는 담수 탄소싱크 어업을 발전시켜 담수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sup>18)</sup> 특히 '쌍탄' 정책 실시를 위해 담수 탄소싱크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담수어업 탄소저장 계산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담수 탄소싱크 기술 연구 및 보급, 담수 양식 품종의 선별(배출물이 적은 품종) 등 방안을 제시했다.

옌커쓰(严可仕) 전인대 대표(민진당 중앙상무위원, 푸젠(福建)성 정협 부주석)는 생태 제품의 가치 실현을 위해 어업 탄소싱크 표준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sup>19)</sup> 이와 함께 어업 탄소싱크 규모 조사와 관련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어업 탄소싱크 표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16) 海洋经济(2023.3.5), <https://mp.weixin.qq.com/s/QWBR8-qivoNtpb1WctN9Q>(검색일: 2023.3.7.)

17) 海洋开发咨询(2023.3.7), “两会”声音: 建议支持海南先行先试开发深远海风电, 组织编制《深远海海上风电发展规划》, <https://mp.weixin.qq.com/s/CGgWol3K2CuUYraB0m3peQ>(검색일: 2023.3.7.)

18) 中国水产品, [https://mp.weixin.qq.com/s/G1Xf1p\\_6QN8W5mcZzTQsw](https://mp.weixin.qq.com/s/G1Xf1p_6QN8W5mcZzTQsw)(검색일: 2023.3.13.)

19) 智慧海洋, <https://mp.weixin.qq.com/s/u2PdwmjZ7wlqzCKO3IZPg>(검색일: 2023.3.8.)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탄소싱크 금융을 도입하여 해양 탄소싱크 경제 산업사슬을 구축하고 푸저우(福州) 어업 탄소싱크 종합시범구의 건설을 지원하며 어업 탄소싱크 개발부터 인증, 거래, 상쇄까지의 핵심 절차를 관통시킬 것을 제안했다.

### (2) 어업자원 보호 강화

리창칭(李长青) 전인대 대표(寻山(寻山)그룹 유한회사 당서기 겸 회장)는 현재 중국 황발해(黄渤海) 휴어 기간은 매년 5월 1일 ~ 9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은 대하, 삼치의 산란기(4월)보다 늦어 자원 보호 효과가 떨어지고 오징어 어획시기(8월)보다 늦어 어민 생산에 피해를 주어 황발해 휴어 기간을 매년 4월 1일 ~ 8월 1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sup>20)</sup>

선진창(沈金强) 전인대 대표(충칭시 인민대표상무위원회 부주임)는 어업자원 DB 구축과 창장 상류 어업자원 전면 조사를 통해 어업자원 보호 체계를 보완하고, 「어획 금지 관리 방법」, 「낙시 관리 방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해 법률 집행 능력을 강화하는 등 방법으로 창장 상류 어업자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안했다.<sup>21)</sup>

### (3) 고품질 어업 발전 촉진

청카이민(程开敏) 전인대 대표(광둥 위에하이(粤海)사료그룹 기술 총감독)는 고품질 어업 발전을 위해 정책, 자금, 기술, 인력 등 분야의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sup>22)</sup> 류한위안 전인대 대표는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수산물 품질안전 추적 체계 구축과 보완을 제안했다.<sup>23)</sup>

[표 6] 고품질 어업 발전 관련 세부 제안 내용

제안/건의자	세부 제안 내용
청카이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 기업소득세 감면, 신용대출 보험 정책 보완 등을 통해 국가 정책자금 지원 강화</li> <li>· 종묘, 질병 관리, 고효율 양식 등 기술을 개발</li> <li>· 대학과 연구 기관의 연구 성과를 어업 생산에 적용</li> <li>· 규모화, 스마트화 양식 등 다양한 모델을 활용해 시료 제품의 차별화, 다양화 추진</li> <li>· 어업기술 인력 훈련 체계를 구축해 전문 인력 육성과 정책 지원을 강화</li> </ul>
류한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품질안전 보장 관련 법률 및 표준 체계 마련</li> <li>· 수산물 양식에서 수출업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해 관리·감독 실시</li> <li>· 관련 기술 혁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li> <li>· 수산양식 기업의 규모화 발전 추진</li> <li>· 수산물 품질안전 추적 체계 구축 기업에 자금 지원 제공</li> </ul>

자료 : 하염뢰(2023), 양회 수산 분야 주요 이슈, KMI 중국 해양수산 위클리, 제23-8호,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pp. 8-10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0) 中国渔业报(2023.3.9.), 两会好声音 || 人大代表李长青:以产业振兴为基础 让发展成果更多更公平地惠及人民群众, <https://mp.weixin.qq.com/s/p-Ewi0sqVdZSDvFva0x2g>(검색일: 2023.3.13.)

21) 中国水产(2023.3.7.), 两会之声 | 沈金强:建议切实加强长江上游渔业资源保护, [https://mp.weixin.qq.com/s/kGkObCOywnH\\_7Lkdy4LiUQ](https://mp.weixin.qq.com/s/kGkObCOywnH_7Lkdy4LiUQ)(검색일: 2023.3.9.)

22) 海洋与渔业杂志, <https://mp.weixin.qq.com/s/r0r-E0S3ZKkA59D6uV4irQ>(검색일: 2023.3.7.)

23) 中国水产(2023.3.7.), 两会之声 | 刘义元:建立健全我国水产品质量安全追溯体系, [https://mp.weixin.qq.com/s/O7duWehv3\\_xrSrcv7aqMXg](https://mp.weixin.qq.com/s/O7duWehv3_xrSrcv7aqMXg)(검색일: 2023.3.8.)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4) 어선 및 어업 시설 현대화·자동화 추진

중국에서는 「어획 허가 관리 규정」에 의해 노후 트롤 어선을 해체하면 다른 조업 유형의 어선으로 개조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귀원바오(郭文标) 전인대 대표는 트롤 어선을 재건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해줄 것을 제안했다.<sup>24)</sup> 이에 더해 20년 이상의 노후 어선을 우선으로 개조하고 친환경 어선 및 현대 어업 시설의 보급을 통해 안정적인 어업생산을 보장해줄 것을 제안했다.

샤용샹(夏永祥) 전인대 대표(저장성 다이산(岱山)현 커위린(柯鱼人) 전문합작사 이사장)는 중국은 해양어업 생산시설 자동화 수준이 낮고 어선의 어획 시설도 낙후되어 정부 주도로 효율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어선 시설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각 성별로 어선관리 정책이 달라 농업농촌 부의 차원에서 통일적인 어선 건조 허가, 법률 집행 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그는 자동화 어획 시설 개발과 보급, 전국적으로 통일된 어선 관리·감독 실시를 제안했다.<sup>25)</sup>

### (5) 내륙과 홍콩 어업 협력 강화<sup>26)</sup>

훙치강(霍后刚) 전인대 대표(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는 내륙과 홍콩의 어업 협력 강화를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 홍콩, 마카오 수역 왕복 조업 어민과 위에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기업 간 협력 추진 △ 산업단지 모델을 통해 구역 어업자원을 종합적 개발하고 안정적인 산업사슬을 형성 △ 중국 과학원과 홍콩의 관련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심해 스마트양식 등 기술 교류 △ 내륙과 홍콩 기업을 연결해 홍콩에 대만구 수산물 공급기지 건설 △ 홍콩·마카오에 공급되는 수산물 검사 공유 플랫폼과 상호인증 메커니즘 구축·보완 △ 광둥(广东)-홍콩 레저어업 공동 발전 추진 △ 어업법 수정 및 불법 조업 단속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 3) 해운·항만·물류 분야

#### (1) 녹색·저탄소 발전 촉진

니디(倪迪) 전인대 대표(코스코쉬핑그룹(COSCO) 사장)는 현재 중국은 해운 녹색·저탄소화 추진에 있어 탈탄소 실천방안 불확실, 산업사슬 지원체계 미비, 핵심 인재 부족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녹색·저탄소 해운 발전 기회를 선점하려면 기술 경로를 명확히 하여 산업 규모를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27)</sup>

한편, 중국은 조선업에 특화된 환경보호법과 규범이 미흡하고 전국적으로

24) 海洋与渔业杂志 <https://mp.weixin.qq.com/s/GWbqRBsXijQQZqmpW5gCkQ>(검색일: 2023.3.7.)

25) 위의 자료

26) 海洋与渔业杂志(2023.3.26.), 霍后刚: 建议加强内地与香港渔业合作, 促进转型升级……关于渔业, 两会代表这样说!, <https://mp.weixin.qq.com/s/GWbqRBsXijQQZqmpW5gCkQ>(검색일: 2023.3.7.)

27) 中华航运网(2023.3.8.), 全国人大代表倪迪: 积极发出绿色低碳航运的“中国声音”,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303/t20230308\\_1374896.shtml](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303/t20230308_1374896.shtml)(검색일: 2023.3.8.)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통일된 조선업 환경보호 표준이 없는 실정으로, 인통위에(尹同跃) 전인대 대표(치루이홀딩스그룹(奇瑞控股集团) 당위서기)는 조선업 녹색·친환경 규범 마련을 제안했다.<sup>28)</sup>

이밖에 창장 유역의 대부분 선박은 전통적인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고 있는 바, 푸귀타오(傅国涛) 전인대 대표(충칭홍장기계유한책임회사(重庆红江机械有限责任公司) 특급 기술자)는 중국 내륙수로 선박의 녹색·스마트 전환 가속화 방안을 제안했다.<sup>29)</sup>

리수푸(李书福) 전국정협 위원(지리홀딩스그룹(吉利控股集团) 이사장)은 탄소 배출 관리제도 보완 및 기업의 '쌍탄(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 실천 독려를 위해 상용차, 특히 시장성과 잠재력이 높은 경형 상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제정과 시행 촉진을 건의했다.<sup>30)</sup>

[표 7] 해운·항만·물류 분야 녹색·저탄소 발전 관련 세부 제안 내용

제안/건의자	세부 제안 내용
니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륙수로·연안 선박은 전기 에너지, 원양 선박은 녹색 메탄올로 대체하는 중기 발전 로드맵 수립</li> <li>· 해운 상·하류 기업이 얼라이언스 형태로 탈탄소 기술과 자금 등 요소를 통합해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가속화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장려</li> <li>·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탄소 거래 체계에 해운을 포함하는 일방적 행위에 문제 제기</li> <li>· 녹색·저탄소 해운에 대한 '중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중국과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 수호</li> <li>· 녹색·저탄소 해운산업의 과학기술 혁신과 고도화를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 강화</li> <li>· 고(高) 배출 선박 퇴출과 신조선의 그린·저탄소 기술 적용 장려</li> <li>· 친환경 신에너지 선박의 갑문 우선 통과, 선박제 및 항만요금 인하 등 우대 정책 시행</li> <li>· 탄소배출 저감 기술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녹색 해운산업 기금 설립</li> </ul>
인통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업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과 녹색 조선소 평가규범 제정</li> <li>· 녹색·스마트 선박 건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li> </ul>
푸귀타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탄올 및 암모니아 등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 주도로 정책 연구와 도입 가속화</li> <li>· 선박·해양공정 산업사슬 상·중·하류 중점기업 육성</li> <li>· 저탄소·무탄소 선박 지원 특별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자립성 강화</li> </ul>
리수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포인트 통계 규칙, 관리 프로세스, 데이터 수집체계 등을 포함한 관리 제도를 제정·시행</li> <li>· 향후 도시 대중교통, 물류, 항만 등 공공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계성이 강하고 세분화된 탄소포인트 관리제 실시</li> </ul>

자료 : 덩팅팅(2023), 양회 해운·항만·물류 분야 주요 이슈, KMI 중국 해양수산 위클리, 제23-8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11-1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8) 海關服務網CNSS(2023.3.6), 聚焦兩會 | 關於航運, 看看代表委員說了啥, <https://mp.weixin.qq.com/s/GVg98O96FpBK1FM895MODg>(검색일: 2023.3.6.)

29) 中國航運報(2023.3.8), 兩會關注 | 推進長江內河船舶綠色智能發展, <https://mp.weixin.qq.com/s/kjplF9Hn1krJoYGEIWSWw>(검색일: 2023.3.8.)

30) 運聯智庫(2023.3.4), 2023全國兩會開幕, 這些建議事关物流供应链! 你最期待哪条落地?, <https://mp.weixin.qq.com/s/b-YTimmerf3aXr5SpTICPIA>(검색일: 2023.3.8.)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2) 디지털화스마트화 촉진

친빈(秦斌) 전국정협 위원(중자오텐진항로국유한회사(中交天津航道局有限公司) 부총경리)은 중국은 창장 본류와 지류 항로를 중심으로 디지털 항로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현재 연안항과 내륙수로 간 격차가 크며, 이에 국가 차원의 디지털 항로 구축 촉진과 운항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sup>31)</sup>

한편, 평홍창(冯鸿昌) 전인대 대표(샤먼컨테이너터미널그룹유한회사(厦门集装箱码头集团有限公司)는 스마트 항만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항만과 사회 물류 자원, 산업사슬 상·하류, 정부 관계 부처 간 데이터 공유, 업무 협동과 서비스 융합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항만 플랫폼 구축 가속화를 제안했다.<sup>32)</sup> 이밖에도 쉬관쥔(徐冠巨) 전인대 대표(촐화그룹(传化集团) 이사장)는 국내·외 경제 원활화를 위해 물류 인프라 디지털화 촉진을 제안했다.<sup>33)</sup>

[표 8] 해운·항만·물류 분야 디지털화스마트화 촉진 관련 세부 제안 내용

제안/건의자	세부 제안 내용
친빈	· 연안항을 대상으로 디지털 항로 구축 장기 계획 수립 · 내륙수로와 통합된 기술표준을 적용하여 강·해 복합운송(江海联运) 스마트화·디지털화 실현
평홍창	· 세계 선진 수준의 항만 스마트화를 위해 디지털·스마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항만물류 생태계와 항만 기능을 융합한 스마트 물류허브 관리·감독 플랫폼 구축 · 항만 이해 관계자 간 정보 통합 및 정보 장벽 해소 · 업무 흐름별 데이터 연결을 통한 스마트화·온라인화·원스톱(one-stop) 항만물류 서비스 시술과 자방 차원의 통관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구축 · 스마트 항만 플랫폼을 통한 항만물류 관련 기업 산업 및 교통 당국, 관리·감독 부서 간 자원 통합, 정보 교환 및 협력 촉진
쉬관쥔	·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공급사슬 산업사슬 효율성 향상 · 도로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위한 중대 프로젝트 지원 관련 디지털화 표준 제정, 대표적인 시범사업 선정 및 홍보 시행

자료 : 덩팅팅(2023), pp. 11-1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 크루즈 산업 육성<sup>34)</sup>

후더팡(胡德芳) 전인대 대표(중국선박발해조선소그룹(中国船舶渤海造船厂集团) 당위서기)는 바다 위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크루즈 산업은 중국 내수 확대에 효과적인 전략산업이므로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국제 크루즈 항로를 조속히 회복하여 관광 소비를 발전시키고 고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후더팡 대표는 중국의 첫 중국산 대형 크루즈선이 올해 5월 말 도크에서 출하해 연말에 인도될 예정이며, 두 번째 국산 대형 크루즈선도 현재 전체 진도가 13%를 넘었다고 밝혔다.

31) 海事服务网CNSS(2023.3.6)(검색일: 2023.3.6.)

32) 中华航运网(2023.3.8.), 全国人大代表冯鸿昌: 加快建设智慧港口平台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303/t20230308\\_1374904.shtml](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303/t20230308_1374904.shtml)(검색일: 2023.3.8.)

33) 运联智库(2023.3.4)(검색일: 2023.3.8.)

34) 财联社(2023.3.9.), 两会船音 | 大型邮轮, 海洋氢能, 央媒持续关注中国船舶代表委员提案

<https://www.cls.cn/detail/xk/6409db103abd48c99fe9ee6b>(검색일: 2023.3.10.)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5) 선원 복지<sup>35)</sup>

니디(倪迪) 전인대 대표는 선원이 선상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회보험과 업계 강제 상업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이중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해외 진료 시에는 국내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선원 배우자 대부분이 전업주부로 기본적인 사회보험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 보장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며, 단일한 보험 납부 규칙으로 보장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니디 대표는 선원은 해운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주체이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전략자원으로, 선원과 같은 특정 그룹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 보장과 권익을 최적화하고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 2019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원양 선원 소득공제 혜택<sup>36)</sup>을 연장해줄 것과 선원 감세 정책을 입법화 해줄 것을 제안했다.

(6) 콜드체인 물류 규범화 추진<sup>37)</sup>

류용하오(刘永好) 전국정협 위원(신시왕그룹(新希望集团) 이사장)은 중국 콜드체인 시장의 규범화, 표준화와 정보화, 콜드체인 선도 기업 육성, 농산물 공급원에 대한 감독·관리·인증 강화, 식자재 공급사슬 전 구간 추적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그는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중국의 콜드체인 물류산업은 연간 20% 이상 성장하는 데 비해 시장 주체가 개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소규모, 분산, 혼란'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보관과 운송 과정에서 표준에 미달되는 설비와 시설을 이용하거나 규정된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잦아 연간 과일류 약 1,200만 톤과 채소류 1억 3,000만 톤이 낭비되고 경제적 손실은 1,000억 위안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 (7)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량첸취안(梁倩娟) 전인대 대표(간쑤(甘肃)성 룽난(陇南)시 수이양진(水阳镇) 쓰탄촌(石滩村) 부녀연합회 주석)은 농산물 심층 가공·보관·콜드체인 물류 등 전자상거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와 농촌 전자상거래의 표준화·규모화 수준 향상을 제안했다.<sup>38)</sup> 이에 더해 디지털 상업과 현역(县域) 상업체계를 구축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1·2·3차 산업(농업·제조업·서비스업)을 통합해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을 통한 농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sup>39)</sup>

자오완핑(赵皖平) 전인대 대표(안후이(安徽) 농업과학원 부원장)는 농촌 택

35) 中国船舶报(2023.3.13.), 为船员发声!完善社保+延续免税.

<https://mp.weixin.qq.com/s/2UEsc1pNVdoVbfVa0XpVZw>(검색일: 2023.3.14.)

36) 연간 183일 이상 항행 선박에서 근무하는 원양 선원의 경우 급여 및 급여소득을 50% 공제하여 과세소득에 산입

37) 당탕탕(2023), p.13

38) 中国经济网(2023.3.10.), 梁倩娟代表——加力支持农村电商发展

<https://baijiahao.baidu.com/s?id=1759937962708527797&wfr=spider&for=pc>(검색일: 2023.3.10)

39) 당탕탕(2023), p.14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  
(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배업과 물류업 발전을 가속하고 농촌 소비 잠재력 방출로 농촌진흥(乡村振兴)을 추진하기 위해 농촌 지역 '라스트 마일 배송'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sup>40)</sup> 그는 농촌 전자상거래와 택배업·물류업 간 융합 발전 촉진, 농촌 택배 서비스의 질 제고, 물류 인프라 보완, 포용적·혁신적·협동적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sup>41)</sup>

### 3 요약 및 시사점

시진핑 집권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된 2023년 양회에서는 올해 거시정책 기조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발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정책의 연속성과 목적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 세제 혜택 지속 및 가속화, 정확하고 온건한 통화 정책, 발전과 안전을 모두 고려한 산업 정책, 과학기술 자립자강(自立自強), 민생의 기본을 확고히 다지는 사회 정책 시행 등을 거시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더불어 경제성장률 5% 내외 달성을 비롯한 2023년 경제 운용목표 실현을 위해 '내수 확대'를 8대 추진 과제의 첫 번째로 두었다. 또 미중 갈등이 과학기술 전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며, 민간기업과 외자기업의 자신감 진작을 위한 국유기업 개혁 심화, 민간 경제 및 기업, 중소기업·영세기업 발전 지원, 외자 유치·이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핵심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와는 달리 중대한 경제·금융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독립된 추진 과제로 명시한 점이 돋보인다.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물류 분야는 2022년 3월 양회 때 발표된 '14·5' 계획, 2022년 10월 개최된 제20차 당대회, 그리고 지난 12월 개최된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통해 재확인된 정책들이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올해 양회에서 전인대 대표와 전국정협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들도 공통되게 녹색·저탄소, 디지털화·스마트화, 신에너지 개발 및 활용, 자원 보호, 고품질 발전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많은 정책들이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고 있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각각의 안건들을 둘러싼 중국의 현황과 문제점, 해법들은 한국에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밖에 이번 양회 기간 국무원 기구 개혁에서 국가발전개혁위 하에 데이터 보안 유지 기능을 부여받은 국가데이터국이 별도로 신설된 만큼 중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업·단체는 중국 내 활동 시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등 문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운·항만·물류 분야 정부 업무 추진 방향은 일단 중국식 현대화 산업 체계

40) 위의 자료

41) 위의 자료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지원을 위한 노력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강국을 비전으로 세워왔다. 지난해 20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효율의 유통체계 건설 및 물류 원가를 낮추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다음으로 쌍순환의 또 다른 축인 '국제 대순환'을 위해 대외개방 노력의 주요 수단으로서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이 계속될 것이다. 아울러 △ 동부 연해지역 개방의 선도적 지위 공고화 △ 중서부 및 동북지구 개방 수준 제고 △ 서부육해 신대통로 건설 가속화 △ 하이난자유무역항 발전 △ 자유무역시범구 업그레이드 등 역점 사업들이 이미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서부·동북지구는 물론, 하이난자유무역항 등의 개발 속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제 박람회 등을 통해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중국-RCEP 무역 통로 발전 노력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상하이의 경우, 이미 2022년 7월 시 차원에서 이미 RCEP 기업서비스 컨설팅 센터(홍차오(虹桥) 경제기술개발구 내)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최근 들어와 상하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베트남으로의 생산 거점 이동, 물류 네트워크 연결 등을 꾀하고 있어 중국과 베트남 등을 연결하는 3각 물류 루트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 분야의 경우 '해양강국 건설' 비전에 따른 고품질 해양경제 발전, 해양 생태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성을 갖고 추진될 것이다. 우선 고품질 해양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해양공정, 해양자원,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등 해양 관련 산업의 성장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이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관심사가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황해와 발해 수역은 한국의 수산자원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수역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상호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sup>42)</sup> 특히 이번 양회를 통해 수산 분야에서 황발해의 휴어 기간 조정 문제가 제기된 바, 그 귀추를 주목하면서 만약 황발해 휴어 기간이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 해역과 어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

'14.5' 계획 이래 전 산업 분야에서 고품질 발전이 강조되면서 수산 분야에서도 각 성시별로 고품질 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세부적으로는 △ 농수산물시장 유통시설 개조 및 업그레이드 △ 농수산물 종자자원 보호 강화, △ 농수산업 구조 조정, 수산 생태 건강양식 강화 △ 농수산업 오염 정돈 및 환경 보호, △ 농수산물 콜드체인 물류시설 건설 △ 스마트 농수산업 발전 등 '14.5' 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sup>43)</sup> 전체적으로 중국의 수산업 발전 방향은 중국 식량 생산의 안정 발전 기초 위에 식량공급 체계의 다원화

42) 한광석 등(2021),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KMI 중국리포트, 제21-6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17

43) 위의 자료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2년 중국  
택배시장
- ▶ 이슈 포커스: 2023년 중국 '양회  
(兩會)'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방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의 수산업은 소비의 진작, 즉 중국 쌍순환 발전 전략의 한 축인 내수 시장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향후 수산물 생산(양식) 못지않게 유통·물류 부분에 대한 선진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농수산물 콜드체인 산업은 발전의 여지가 크므로,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진출 영역으로 국제 수산물 콜드체인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수산물 생산 대국이면서 동시에 수입 대국이므로, 한국-아세안-중국을 잇는 국제적 수산물 가공·수출·유통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총괄·감수: 박성준 센터장

작성 : 김은우 부연구위원

진선선 중급연구원

하염희 중급연구원

딩팅팅 연구원

kmishanghai@naver.com